

# 미혼여성이거나 불임인 경우 자궁근종이나 선근종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까?

장호선 그레이스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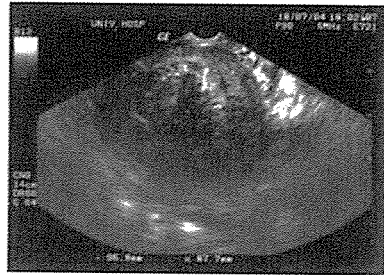


## ○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

**자**궁근종은 30~40대 젊은 여성의 25%에게서 제일 많이 생기는 흔한 혹이며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생기거나 커진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산부인과 정기검진으로 우연히 발견된다. 근종의 정확한 원인 분석은 가장 간편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대부분 가능하다. 자궁선근종은 자궁근종과는 생기는 원인이 다르며 초음파로도 알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자궁근종으로 오인된다.

이러한 근종에 의한 증상으로는 월경통, 월경과다, 그에 따른 빈혈, 월경 장애, 현기증, 허리 통증,

빈뇨, 배뇨 장애, 불임 등을 들 수 있다. 자궁근종에 대해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자궁 적출술, 자궁 근종 절제술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 4~5일 동안 입원이 필요하고 출혈, 수혈, 수술 후 유착, 마취에 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생리통과 과도한 생리 출혈이 문제가 되는 선근종인 경우엔 수술로는 치료를 거의 하지 않고 주사 약제나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술 전  
직경 약 10cm의 거대근종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화시켜 자궁 근종을 괴사 용해시키는 자궁근종 용해술이 간단한 수술법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의 장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신 마취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흉터가 남지 않고 출혈이 없어 수혈의 가능성이 없고 기존 레이저보다 유착 발생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전 자궁 적출술 이외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없는 자궁선근종까지 치료할 수 있고 만약 재발될 경우 재시술도 가능하다.



시술 43일 후  
직경 약 5cm로 감소(부피로는 90% 감소)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의 원리는 자궁근종에 고주파를 발생하는 탐침을 집어넣어 탐침 끝에서 열 생성을 시켜 근종조직을 괴사시키고 근종 성장에 필요한 혈관을 응고시켜 영양 공급을 막고, 근종 조직의 성장 수용체를 없애서 근종이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근종으로 인한 증상들 즉 월경불순, 월경과다, 빈뇨, 배뇨 장애, 월경통 등이 95% 이상 없어지게 된다.

특히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 젊은 여성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제거하면 심리적 허탈감, 상실감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고주파 자궁용해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자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미혼 여성이나 불임인 경우 훨씬 득이 되는 점이 많다. ☺